

뷰티계열 대학생의 재학 중 일 경험과 전공 만족도가 전공 일치 첫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황해정
이누리 평생교육원 교수

An Effect Analysis of Impact of the Major Satisfaction Level And Job Experience Had Been Done During Undergraduate on the First Job in Beauty Major Undergraduate Students

Hae Jung Hwang
Professor, e-Nuri lifelong education

요약 뷰티 계열 대학생의 재학 중 일 경험과 전공 만족도가 전공 일치 첫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 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 GOMS) 6개년도 (2012~2017년) 자료에서 뷰티 계열 취업자 168명을 선정하였다. 자료 및 통계분석은 Windows 기반 SPSS Client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독립성 검정과 로지스틱 다중회귀 분석결과, 재학 중 일 경험 여부, 일 경험 기간, 일 경험 회수가 전공 일치 첫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 불일치 일 경험이 있는 경우, 반면 전공 일치 일 경험이 있는 경우, 일 경험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대비 6개월 이상~1년 미만일 때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재학 중 일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제도의 교육 정책 지원과 뷰티 계열 졸업생의 취업 이행 행태를 파악하는 기초 자료가 되고자 한다.

주제어 : 첫 일자리 전공 일치, 전공 만족도, 일 경험 여부, 일 경험 기간, 일 경험 회수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s of undergraduate-work-experiences for beauty-major's graduates. 168 samples were selected from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data 2012 ~ 2017. As a result of a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 job experience, job period, and number of experienced job type mattered. In case of having non-major job experience while studying, the opportunities of finding a job of one who has no experience was higher than that of one had over a year work experience. While in case of having major job experience in the field of studying, one who has experience over 6 months and less than a year had higher chance in finding a job than that of one who had over a year work experience. I hope this promotes reviewing a systematic educational policy and helps to get a fundamental information on job-seeking behavior of beauty major graduate.

Key Words : First job matching majors, Major satisfaction level, Job experience, Number of job experience, Period of job experience

1. 서론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 성장은 직업 환경 변화와 학생들의 학과 선호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전국 대학에 많은 실용학과가 신설되었다. 특히, K뷰티 한류 문화의 경제적 성장으로 대학 내에 뷰티 관련학과의 신

설이 증가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많은 K뷰티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다. 이승주(2009년)의 수도권 입학 지원률, 재학률, 취업률 상위 100개 학과를 분석한(2006~2008년 3개년 평균) 선행 연구[1]에서 미용 예술과는 재학률 98.66, 입학 지원률 13.2, 취업률 88.43 등으로 높게 나타났고, 취업률이 97.67로 가장 높은 헤어디자

*Corresponding Author : Hae Jung Hwang(nerohwang@naver.com)

Received October 13, 2020

Accepted November 20, 2020

Revised November 5, 2020

Published November 28, 2020

인과의 경우 입학 지원률 9.5, 재학률 94.87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러나, 인구 감소, 직업 환경 변화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현실로 전공 일치 취업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뷰티 계열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는 타 학과에 비해 낮고 전공 실기, 이론 교육 이수 후 졸업하고 취업해도 산업 현장에 바로 일하는 것에 무리가 따라 타 교육기관이나 산업 현장에서 일정 부분 실습 재교육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2]. 우리나라 대학 교육은 최고의 양적 수준을 내세우나 질적 수준에서 산업 현장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적 한계로 인해 취업의 어려움과 잦은 이직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뷰티 전공 학생들은 졸업 후 전문가가 되기 위해 긴 숙련 기간과 저임금, 장시간 근무 등의 열악한 직업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 이중 고충을 가지고 있다[3]. 이러한 현실은 졸업 후 전공 일치 취업 연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청년 실업 문제 해결 및 전공 일치 취업 연계를 위한 대학 교육 변화, 학생들의 일 경험에 대한 인식 변화는 21세기 지식 글로벌 사회에서 대학과 산업체를 상생 발전시키고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4]. 특히, 뷰티 관련학과와 같은 기술 전공은 타 전공과 달리 현장 기술 업무가 주이기에 재학 중 현장실습 등 일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5]. 재학 중 다양한 형태의 일 경험은 전공 일치 취업과 일자리 업무 만족, 이직률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기에 통계적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뷰티 계열 졸업생의 재학 중 일 경험이 첫 일자리 전공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 및 요인을 분석하고, 대학의 전공 일치 취업 확대 방안으로 학생들의 재학 중 일 경험 학습 제도 활성화 및 교육 정책 지원 제도 마련의 기초가 되고자 연구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뷰티학과

1990년대 중반 국내 대학 내에 미용 또는 뷰티 학과가 신설되며 전공으로 인정받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헤어, 피부, 메이크업, 네일 각 분야로 전공 분리되어 더욱 전문적으로 세분화하여 교육하고 있다[6]. 2017년 전국 대학 기준, 화장품 및 뷰티 관련학과는 전문대 80개, 대학 51개, 대학원 47개이다. 4년제 대학교는 2012년 33개교

37개 학과에서, 2017년에도 51개 학과로 증가하였고 전문대는 2013년 기준 120개 학과에서 2017년 80개 학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7]. 헤어 자격증 취득으로 뷰티 모든 분야에 인정받았던 미용 국가 자격증은 현재 각 분야별로 분리되어 운영되면서 대학에서 전공하지 않더라도 미용 학원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 후 자격증을 취득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2.2 전공 만족도

전공은 어느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전공 만족도는 이러한 자신의 전공에 대한 만족을 느끼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미선(2019)은 전공 만족도를 자신의 전공학과 교육에 대해 스스로 지각하는 주관적인 생각과 태도, 느낌의 포괄적 개념[8]이라 하였고, 정보연(2010)은 전공에 대한 이해와 적성, 흥미를 고려한 바람직한 전공 선택이 전공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고[9], 어윤경(2010)은 학과 전공과 직무 상관성에 있어서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다 하였다[10]. 또한, 김민하(2015)는 현재 자신의 전공이 직업 또는 취업 분야에 대한 기준에 일치할 때 전공 만족도와 학업에 대한 성취도가 높고[11], 문영만(2017)은 임금과 고용 형태 등과 같은 객관적 근로 조건뿐 아니라 직장 만족도와 직무-전공 일치도와와의 연관성이 이직을 낮춘다[12]고 하였다. 미용 전공 대학생의 적성, 경험, 성격, 흥미를 고려한 전공 선택이 진로 결정 및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낮추는 역할을 하였다[13]. 전공 만족도는 취업 준비 행동에 효과적인 역할을 유도하여 취업 연계를 상승시키고,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 영향요인이라 할 수 있다[14].

2.3 재학 중 일 경험

재학 중 일 경험은 실무와 문제 해결 능력 등 개인의 역량에 도움을 주고 취업 정보와 인맥을 넓혀주어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15] 취업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16]. 예체능계열 졸업자의 경우, 일자리 탐색 등 전반적인 취업 준비 행동이 일반 타 전공자들에 비하여 낮다[17]. 일 경험에 의한 동종 업계로의 직업이동은 임금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타 업종으로의 직업이동은 임금감소라는

부정적 영향 미친다[18]. 김춘식(2019)은 취업 연계를 위한 학생들의 일 경험 형태로 아르바이트, 인턴, 직장체험 현장실습, 산학협력 현장실습 (Co-op) 등이 있으며 직업 탐색에 있어서 중요한 행동이고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과정[19]이라 하였다. 아르바이트는 학생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학업 이외에 경제행위로 부업 하는 것으로, 단기 또는 임시 형태로 고용되어 일한다. 간호대학생의 경우, 의사소통 능력, 자기 효능감, 사회적 기술의 정도가 아르바이트 시작 시기와 영향이 있었다[20]. 인턴십은 학교가 아닌 현장에서 얻은 경험 학습을 뜻하는 의미로 Janice(2001)는 인턴십, 서비스 학습, 협력 교육, 현장실습 등을 다양한 용어로 정의하였고[21], 김상길(2000)은 학교에서 습득한 이론과 산업체 현장에서 배양할 수 있는 체험을 연결해 심화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교육제도[22]라 하였다. 현장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사회 현장에서 실제로 응용하는 활동으로 이론과 실기의 통합에 따른 현장수행능력 향상과 전공 관련 산업체 현황 및 미래 전망에 도움을 주어 진로 결정에 큰 도움이 된다. 서란숙(2019)은 뷰티 전공 학생의 현장실습 참여는 비공식적인 취업 정보탐색 활동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 진로 결정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높인다[23]고 하였다. 산학협동교육(Co-op)은 학생을 고용하는 학계와 산업체 간 파트너십이다. Wankat(2002)은 학생들의 경험적 학습 접근법으로, 실질적인 업무를 경험하고 졸업 후 경력을 시작하기 전 교육의 혜택과 학업 성취도, 학습 성과 및 주관적 복지 혜택을 경험하게 한다[24]고 하였다.

3. 연구 방법

3.1 연구의 설계

본 연구는 실용 뷰티 전공 학생들의 재학 중 일 경험과 전공 만족도가 전공 일치 첫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 조사”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 GOMS) 자료를 바탕으로 뷰티 계열 졸업생의 일반적 특성과 일 경험 특성에 있어 전공 일치 취업 이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고 전공 일치 첫 일자리에 대한 영향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모형은 Fig. 1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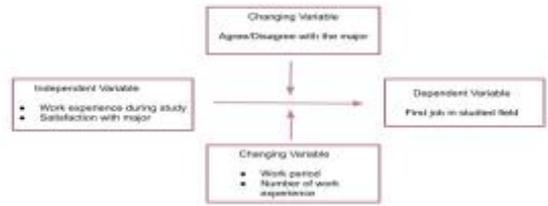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 가설

가설 1) 재학 중 일 경험은 전공 일치 첫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재학 중 전공 만족도는 전공 일치 첫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연구 도구 및 분석

본 연구는 실용 뷰티(미용) 전공 학생들의 재학 중 일 경험이 전공 일치 첫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로 대학 졸업 후 노동 시장 진입과 정착 과정에 대한 실증 자료인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 조사”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 GOMS) 6개년도(2012~2017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GOMS는 매년 2~3년제, 4년제 대학 전년도 졸업자 1만 8천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1회 조사한 횡단면 조사로 졸업 이후 노동 시장 이행에 관한 연구에 적합한 정부 기관 통계 자료이다. 이 자료에서 뷰티 계열 졸업자 349명을 추출하고 미취업자를 제외한 취업자 168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재학 중 일 경험과 전공 만족도가 전공 일치 첫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뷰티 전공 졸업생을 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기초통계량 분석하였다. 전공 일치 첫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기 위해 독립성 검증하고, 요인의 영향도를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다중 회귀분석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 분석 및 통계분석은 Windows 기반 SPSS Client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일반적 특성의 빈도분석

본 연구의 모집단 뷰티 계열 졸업생 349명 중 취업자

168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기초 통계 표본 통계량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개인 특성 분포에서 전공 특성상 성별은 여성 비중이 89.9%로 남성보다 높았고, 연령은 25세 미만 비중이 86.3%로 25세 이상보다 높았다. 학교 특성에서 학교 소재지는 비수도권이 60.1%로 분포되었다. 학교생활 특성에서 재학 중 전공 만족도는 만족함이 86.9%로 불만족보다 높았고 재학 중 일 경험은 있음이 56.5%로 없음보다 높았다. 또한, 일 경험의 횟수는 1회가 38.7%, 일 경험의 근무 기간은 6개월 미만이 26.8%로 높았다. 이는 피부미용 종사자들이 생각하는 현장실습 기간, 횟수, 시기에서 적절한 현장실습 기간은 2개월, 실습횟수는 2회가 가장 많았다는 선행 연구[24] 결과와 유사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	B	C	D	E
a	e	2012	38	22.6
		2013	29	17.3
		2014	27	16.1
		2015	24	14.3
		2015	29	17.3
b	f	Male	17	10.1
		Female	151	89.9
	g	under 25s	145	86.3
		25s - 30s	17	10.1
		30s - 40s	4	2.4
		over 40s	2	1.2
c	h	Metropolitan region	67	39.9
		Non-metropolitan region	101	60.1
d	i	Having experience	95	56.5
		No experience	73	43.5
	j	no experience	73	43.5
		1 time	65	38.7
		2 time	19	11.3
	k	over 3 time	11	6.5
		None	76	45.2
		less than 6 months	45	26.8
		6 -12 months	27	16.1
	l	l	over 12 months	20
Dissatisfied			22	13.1
Satisfied			146	86.9

A : Categories, B : Independent variables, C : level, D : Frequency, E : Percent(%)

a : Reserch period, b : personal characteristic,
c : School characteristics, d : School life

e : research year, f : gender, g : age,
h : School location, i : Job experience
j : Number of job experience,
k : Period of job experience
l : Major satisfaction level

4.2 독립성 검증

전공 일치 첫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기 위해서 독립성 검증을 하였고 양측 검정 95% 신뢰구간 범위에서 채택하였다. 분석결과, 전공 일치 첫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재학 중 일 경험 여부(p-value 0.01), 비전공 분야에서의 일 경험 기간(p-value 0.04), 일 경험횟수(p-value 0.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 만족도(p-value 0.12)는 전공 일치 첫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재학 중 전공 일치 일 경험이 있는 학생이 첫 일자리 진입이 빠르고 직무 만족도가 높았다는 선행 연구 결과[25]와 유사하였다. 첫 일자리 전공 일치 여부에 따른 개인 특성, 학교특성, 학교생활 특성 차이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므로 재학 중 일 경험은 첫 일자리 전공 일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가설은 채택되었고, 재학 중 전공 만족도는 전공 일치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독립성 검증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 Test of Independe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A	B	C			G
		D	E	F	
		H	H	H	
a	2012	16.7	6.0	22.6	$\chi^2=1.747$
	2013	12.5	4.8	17.3	
	2014	11.9	4.2	16.1	
	2015	11.3	3.0	14.3	
	2017	10.7	1.8	12.5	
b	Male	8.3	1.8	10.1	$\chi^2=0.329$
	Female	68.5	21.4	89.9	
c	25	65.5	20.8	86.3	$\chi^2=0.977$
	25-30	8.3	1.8	10.1	
	30-40	1.8	0.6	2.4	
	40	1.2	0.0	1.2	
d	Metropolitan region	29.2	10.7	39.9	$\chi^2=0.834$
	Non-metropolitan region	47.6	12.5	60.1	
e	Dissatisfied	8.3	4.8	13.1	$\chi^2=2.456$
	Satisfied	68.5	18.5	86.9	

(Continued)

Table 2. Test of Independe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A	B	C			G
		D	E	F	
		H	H	H	
f	Having experience	39.3	17.3	56.5	$\chi^2=6.558^{**}$
	No experience	37.5	6.0	43.5	
g	1	58.9	14.9	73.8	$\chi^2=6.159^*$
	2	10.7	5.4	16.1	
	3	4.8	0.6	5.4	
	4	2.4	2.4	4.8	
h	1	51.2	10.7	61.9	$\chi^2=8.01^{**}$
	2	14.9	8.3	23.2	
	3	7.7	1.8	9.5	
	4	3.0	2.4	5.4	
i	1	37.5	6.0	43.5	$\chi^2=8.894^{**}$
	5	28.6	10.1	38.7	
	6	6.5	4.8	11.3	
	7	4.2	2.4	6.5	

※* p<.05, ** p<.01, *** p<.001

A : Independent variables, B : level, C : First job type, D : Major-related job, E : none major-related job, F : Total, G : Test statistics H : % or mean

a : Research period, b : Gender, c : Age, d : School location, e : Major satisfaction, f : Job experience, g : Work experience at major related field(Months), h : Work experience, i : Count work experience during undergraduate at major non-related field (Month)

1 : None, 2 : less than 6, 3 : more than 6-less than 12, 4 : more than 12, 5 : 1 time, 6 : 2 time, 7 : more than 3

4.3 영향도 분석

독립성 검증을 통해 검증된 재학 중 일 경험 여부, 재학 중 비전공 분야 근무 기간, 재학 중 일 경험횟수의 주요 변수가 전공 일치 첫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을 위해서 Backward LR 모델을 사용한 Logistics 다중회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학 중 전공 불일치 일 경험이 있는 경우, 일 경험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대비 일 경험이 없을 때 뷰티 계열로의 취업 가능성이 4.534배 높게 나타났고, 반면 재학 중 전공 일치 일 경험이 있는 경우, 일 경험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대비 6개월 이상~1년 미만일 때 뷰티 계열로의 취업 가능성이 11.184배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예체능계열 졸업생 전공 일치 취업은 재학 중 전공 불일치 일 경험자에 비해 전공 일치 경험자 또는 미경험자에서 높았다는 선행 연구 결과[26] 와 유사하였다. 타 학과 대비 낮은 임금 등의 열악한 직업 환경 특성상 전공 일치 일 경험을 통한 근무 기간이 길지 않았을 때 전공 일치 취업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로지스틱 다중회귀 분석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 Factor analysis of impacts that influence first workforce and major conformity degree

Valid Causes	B	S.E.	Wald	df	Sig.	Exp(B)	95 % C.I.for EXP(B)	
							Lower	Upper
Non-major related working experience period in months C			8.443	3	0.038			
Non-major related working experience period in months C (1)	1.512	0.734	4.238	1	0.040	4.534	1.075	19.121
Non-major related working experience period in months C (2)	0.439	0.763	0.332	1	0.565	1.552	0.348	6.916
Non-major related working experience period in months C (3)	1.265	0.932	1.842	1	0.175	3.545	0.570	22.040
Major related working experience period in months C			6.611	3	0.085			
Major related working experience period in months C (1)	1.680	0.771	4.749	1	0.029	5.367	1.184	24.324
Major related working experience period in months C (2)	1.041	0.848	1.508	1	0.219	2.833	0.538	14.930
Major related working experience period in months C (3)	2.414	1.307	3.412	1	0.065	11.184	0.863	144.933
Constant	-1.386	1.020	1.846	1	0.174	0.250		

Major related/Non-major related working experience period in months C : Over a year

Major related/Non-major related working experience period in months C (1) : No experience

Major related/Non-major related working experience period in months C (2) : Less than 6 months

Major related/Non-major related working experience period in months C (3) : More than 6 months ~ Less than 12 months

5.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뷰티 계열 졸업생들의 재학 중 일 경험이 전공 일치 첫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인턴과 같은 일 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경험이 없는 청년층 보다 첫 일자리 정규직 근무 확률이 높았다는 선행 연구 결과[27], 미용 대학 학생은 타 전공 대비 현장실습 경험이 전공 만족 및 취업 행동에 유효한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 연구 결과[28]와 유사하여 재학 중 일 경험이 취업 연계에 있어서 효과적 영향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또한, 재학 중 일 경험에 있어서 근무 기간과 횟수가 첫 일자리 전공 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재학 중 전공 일치 일 경험 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으로 길지 않았을 때, 근무 회수가 1회로 많은 노출이 없었을 때 뷰티 계열로의 첫 취업에 높은 영향을 주었고, 1년 이상 장기근속 경험보다는 미 경험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대졸자의 재학 중 인턴십 경험이 정규직 취업과 좋은 일자리 취업에 양적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29]는 선행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반면에, 재학 중 경험한 일자리 수가 많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졸업 후 첫 직장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았다는 선행 연구 결과[30]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뷰티 계열 전공 학생들의 재학 중 일 경험 활동이 전공 일치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대학의 직업 교육을 위한 일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및 산업교류 등 제도화된 교육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뷰티 계열 대학생의 졸업 후 취업 이행 행태 파악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연구의 한계성으로는 GOMS 조사에 대한 뷰티 계열 졸업생의 응답자 수가 양적으로 부족하여 추가 평가 수행을 위한 2차 분석에 제한적이었고, 연구 결과를 전체 뷰티 계열 졸업생의 결과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뷰티 계열의 헤어, 피부, 메이크업, 네일, 전공별 직업 경로 탐색 후속 연구가 이어져 뷰티 계열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직업 탐색을 위한 다양한 자료가 제공되길 바란다.

REFERENCES

[1] S. J. Lee. (2009). *A Study on Department*

Preferences of Korean College University Applicants. Master's degree of Hongik University, Seoul.

- [2] J. Y. Lee. (2000). The study on a direction of development and curriculum in junior college relative to a cosmetology department aroun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6(2), 487-506.
- [3] E. H. Kim. (2011). *A Study of Skin and Hair Care Department Graduates' Satisfaction with Their Jobs and Processes of Beauty Care Education*. Master's degree of Seokyeong University, Seoul.
- [4] J. M. Lee & H. J. Kim. (2019). A study on the effect of college graduate's education and job preparation experiences on the major-job match. *Journal of the Kore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Society*, 37(5), 127-148. DOI : 10.22553/keas.2019.37.5.127
- [5] R. S. Suh. (2019).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employment behavior of field students in cosme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25(1), 1-9.
- [6] M. Z. Shin. (2017). A Study on the Status and Future Plan of Department of Beauty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keup Design*, 13(2), 25-34.
- [7] www.academyinfo.go.kr
- [8] M. S. Lee & H. N. Kim. (2019). A study on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presence / absence of career counseling on the major matched employment determination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Journal of the Korea Career Career Association*, 9(1), 33-53. DOI : 10.35273/jec.2019.9.1.002
- [9] B. Y. Jeong. (2010). *The Effect of Motivation for Major choice of University Students on Vocation Choice Factors*. Master's degree of Kyonggi University, Suwon.
- [10] Y. K. Au. (2011). The relation between the career counseling activity,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ation: Regulating effect of decision-making criterion for major. *Journal of the Counseling Association*, 12(5), 1793-1811. DOI : 10.15703/kjc.12.5.201110.1793
- [11] M. H. Kim. (2015). *Research on major satisfaction and job choice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beauty treatment*. Master's degree of Gwangju

- Women's University, Gwangju.
- DOI : 10.5762/KAIS.2016.17.7.123
- [12] Y. M. Moon & J. P. Hong. (2017). Youth Employees Turnover Determinants by Business Scale and Wage Effects. *Journal of the Korea Labor and Society Institute*, 23(2), 195~230
- [13] E. J. Shin & S. H. Seo. (2018). Effects of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and Self-efficacy for Career Decision-making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Cosmetology on their Job-seeking Stress. *Journal of the Korean Beauty Society*, 24(2), 378-387.
- [14] J. Y. Kim & C. J. Han. (2019). The Effect of Satisfaction with Majors on Physical, Psychological and Job-Seeking Stress in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kin and Cosmetolog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25(1), 35-41.
- [15] E. J. Park. (2018). *Effects of job experience on job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nd moderating effect of major related experience in young college students graduating from university*. Master's degree of Kyonggi University, Kyonggido.
- [16] J. S. Jeong, S. J. Lee & J. C. Shin. (2011), Analysis of college graduate's job search processes and quality of employment: focusing on the differences across academic majors.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14(3), 53-78.
- [17] Y. M. Lee, S. Y. Lee & J. Y. Lim. (2013). Sports and Dance Graduates' School-to-Work Transition Preparation and Employment Outcomes. *Journal of Institute of Social Science*, 52(1), 1-28.
- [18] M. Glus. (2014). The impact of job mobility on earnings : using occupational and industrial classifications to identify job changes.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Economics*, 28(2), 181~190.
- [19] C. S. Kim. (2019), A Study on the University Start-Up Activation Plan through CO-OP Education : Focused on Development of a University Education Model with linking Field Practices.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26(3), 61-80.
DOI : 10.21219/jitam.2019.26.3.061
- [20] I. O. Sim & G. W. Song. (2016). Study of Effect o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elf-Efficacy, Social Skill from Nursing Students' Part Time Work Experienc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7), 123-133.
- [21] J. Tovey. (2001). Building Connections between Industry and University : Implementing an Internship Program at a Regional University. *Journal Technical Communication Quarterly*, 10(2), 225-239.
- [22] S. G. Kim. (2000). A Study on the Value of Sandwich Education System in Colleges and Universitie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Higher Education*, 11(1), 1-23.
- [23] P. C. Wankat, R. M. Felder, K. A. Smith & F. S. Oreovicz. (2002). " The scholarship of teaching and learning in engineering " Disciplinary styles in the scholarship of teaching and learning. *Journal of the Exploring common ground*, 217-237.
- [24] S. K. Kang. (2014). Study on Analysis of Factors of Skin Care Employees' Importance and Necessity on Work Exper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20(6), 1076-1082.
- [25] E. S. Lee & G. Y. Park. (2018). The Effects of Work Experience in Four-Year College on the Earlier Labor Market Transitions.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1(3), 115-133.
DOI : 10.32341/JCER.2018.09.31.3.115
- [26] Y. K. Lee, K. J. Yang & J. Y. Yoo. (2020). The Effects of In-School Job Experiences on Accordance Ratio between Major and the First Job among Arts & Physical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10(1), 79-99.
DOI : 10.35273/jec.2020.10.1.004
- [27] J. M. Hong. (2018). Analyzing the effect of internship experience during college on post-graduate first job quality. Master's degree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28] R. S. Seo. (2019).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Employment Behavior of field Students in Cosmetology University - Focusing on the difference between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about Fieldwork.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25(1), 1-9.
- [29] S. Y. Um. (2015). *The effect of the university internship experience on labor market outcomes*. Master's degree of Yonsei University, Seoul.
- [30] J. S. Jo. (2015). Determinants of the Number of Job Experience and Duration to First Job in College.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1), 183-194.

황 해 정(Hae Jung Hwang)

[정회원]



- 1997년 2월 :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학 석사)
- 2015년 8월 :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학 박사)
- 2003년 2월 ~ 2011년 12월 : 서울호서전문학교 피부미용 학과장

- 현재 : 이누리 평생교육원 교수
- 관심 분야 : 웰니스, 융복합, 보건경영
- 이메일: nerohwang@naver.com